

음악의 경계, 경계의 음악

라이브 스트리밍 작업을 중심으로

김지연

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...

- 2011년부터 작업. 바깥소리를 녹음, 믹스해서 음악작업을 하거나, 그 과정을 재구성하여 관객이나 청취자에게 경험하게 하는 방식.
- 사운드 아트 담론에서 다루어지는 소리, 비음악에 대한 논의에 관심.
- '듣기', '바깥', '사람이 없는 풍경' 에 대한 주제적 관심.
- 기술모임, 동료, 구체적 작업, 레지던스 등의 기회를 통해 소리를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해 나갔음.
- 2014-15년에 라이브 스트리밍 매체를 접했음. '녹음' 이라는 과정에서 경직되어있던 부분들을 다시 보게되면서 스트리밍 매체를 적극 탐험하게 되었다. 음악의 형태에 대해 좀 더 열린 태도를 지향하게 되었음.

라이브 스트리밍 작업

- 방식

: 기술 매체로 '음악을 구성하는 것들'과 '듣기 방식'에 접근한다.

- 주제

: 시간성(시차, 동시성, 다른 시간), 장소성(이곳과 저곳. 바깥. 연결)

- 사례 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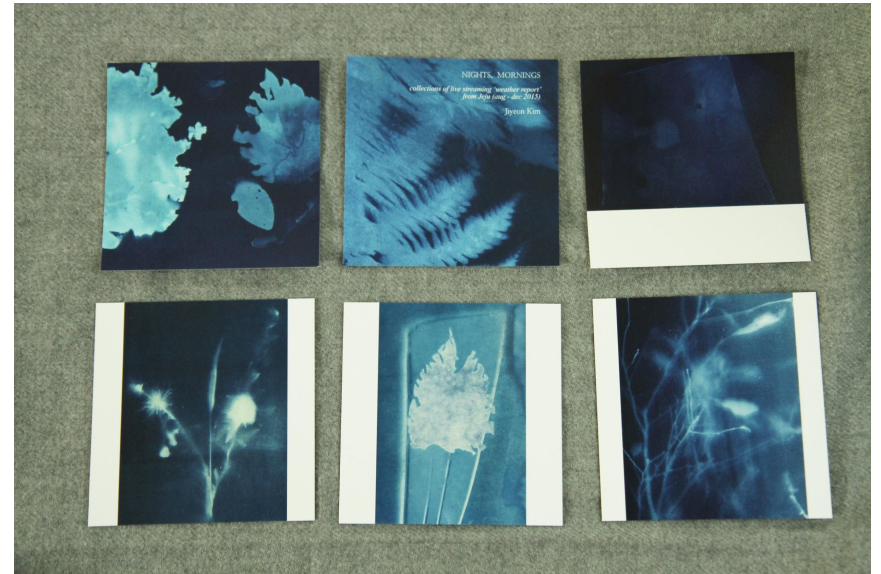
1. 웨더리포트
2. 투명한음악
3. 피아노데이

웨더리포트 WeatherReport (2015 -)

- 영국 콜렉티브 'soundcamp(사운드캠프)'와의 교류
- 제주에 이주한 후에 라이브 스트리밍 매체의 특성을 활용한 스트리밍 라디오 작업으로 시작. **2016**년부터는 이강일 작가와 협업하여 콜렉티브로 활동.
- 스트리밍 라디오, 퍼포먼스, 캠핑, 설치 등의 방식으로 작업 발표.
- 라이브 스트리머 제작. 야외장소에 설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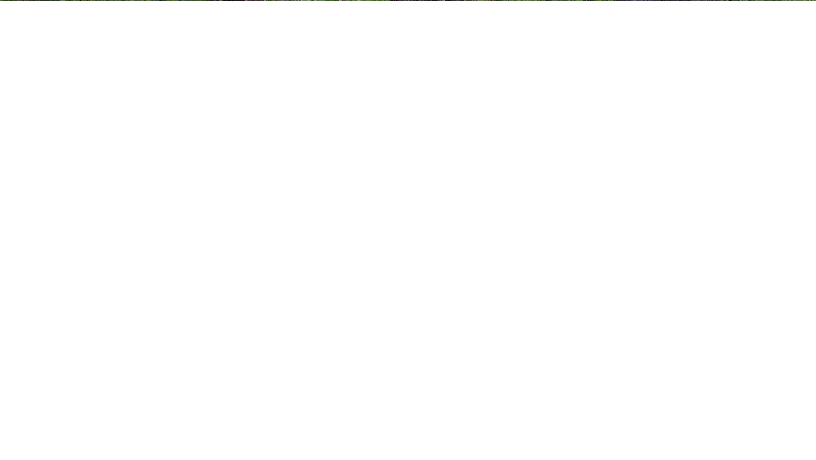


- 2015-2016년: 제주에 거주하게 되면서 웨더리포트 제주(라이브 스트리밍 방송) 2015년 스트리밍+녹음 파일로 구성, 2016년 실시간 환경소리+키보드즉흥.
형태: 메일링, 소책자 및 미니앨범 발간, 리스닝이벤트 기획
- 2016년: 아르코 한-영 리서치 진행
- 2017, 2018년: 제주 곳자왈, 북한산 국립공원 등지에서 리스닝캠프
- 2018년: 제주 문화공간 양에서 레지던스. 이후에 공간의 요청으로 상시 스크리머 설치+라이브 스트리밍 맵 프로젝트에 참여
- 2019년: 제주-런던 엠비언트 네트워크 사운드 퍼포먼스 공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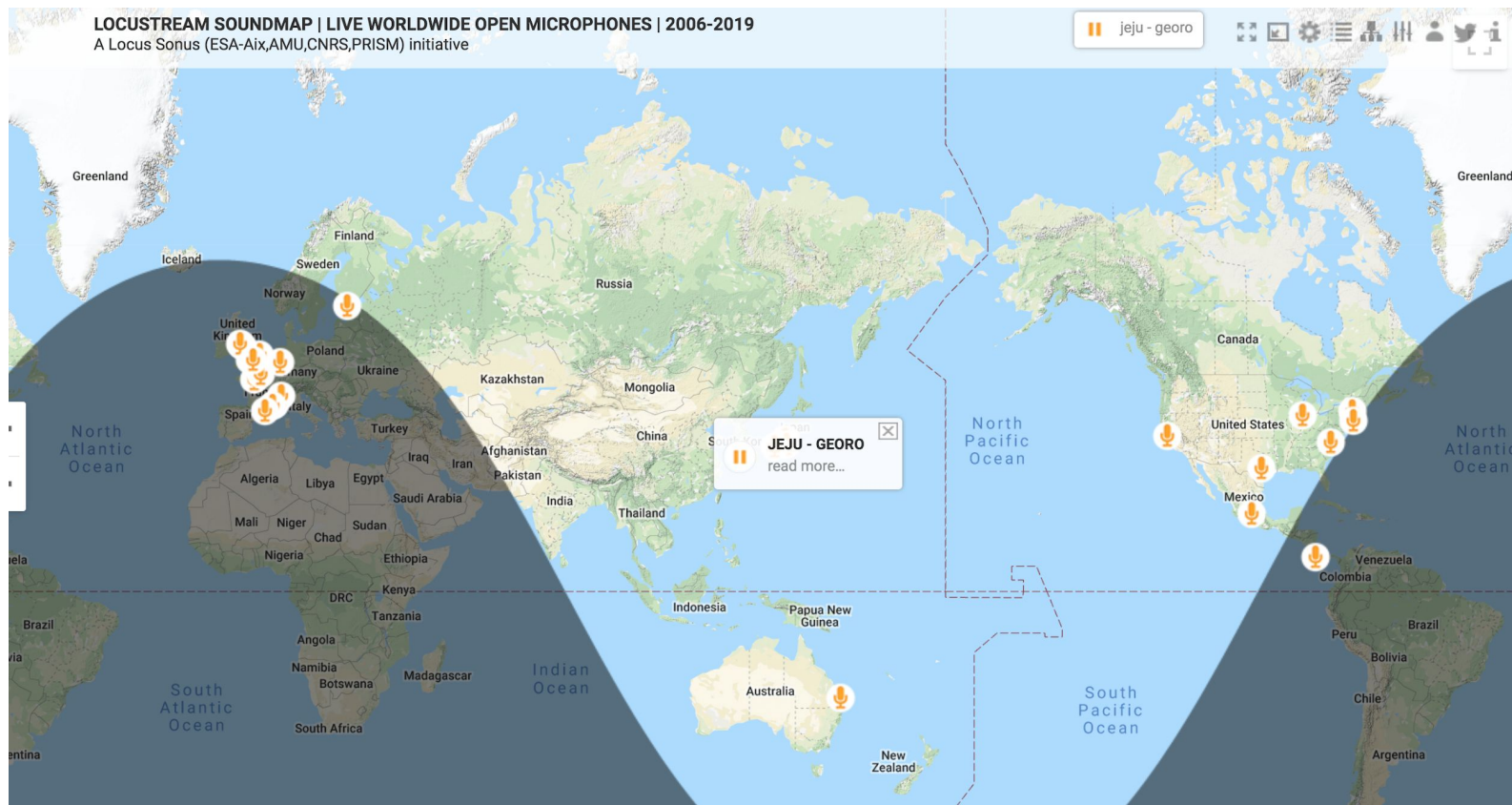








Locus Sonus Soundmap



제주-런던 네트워크 사운드 퍼포먼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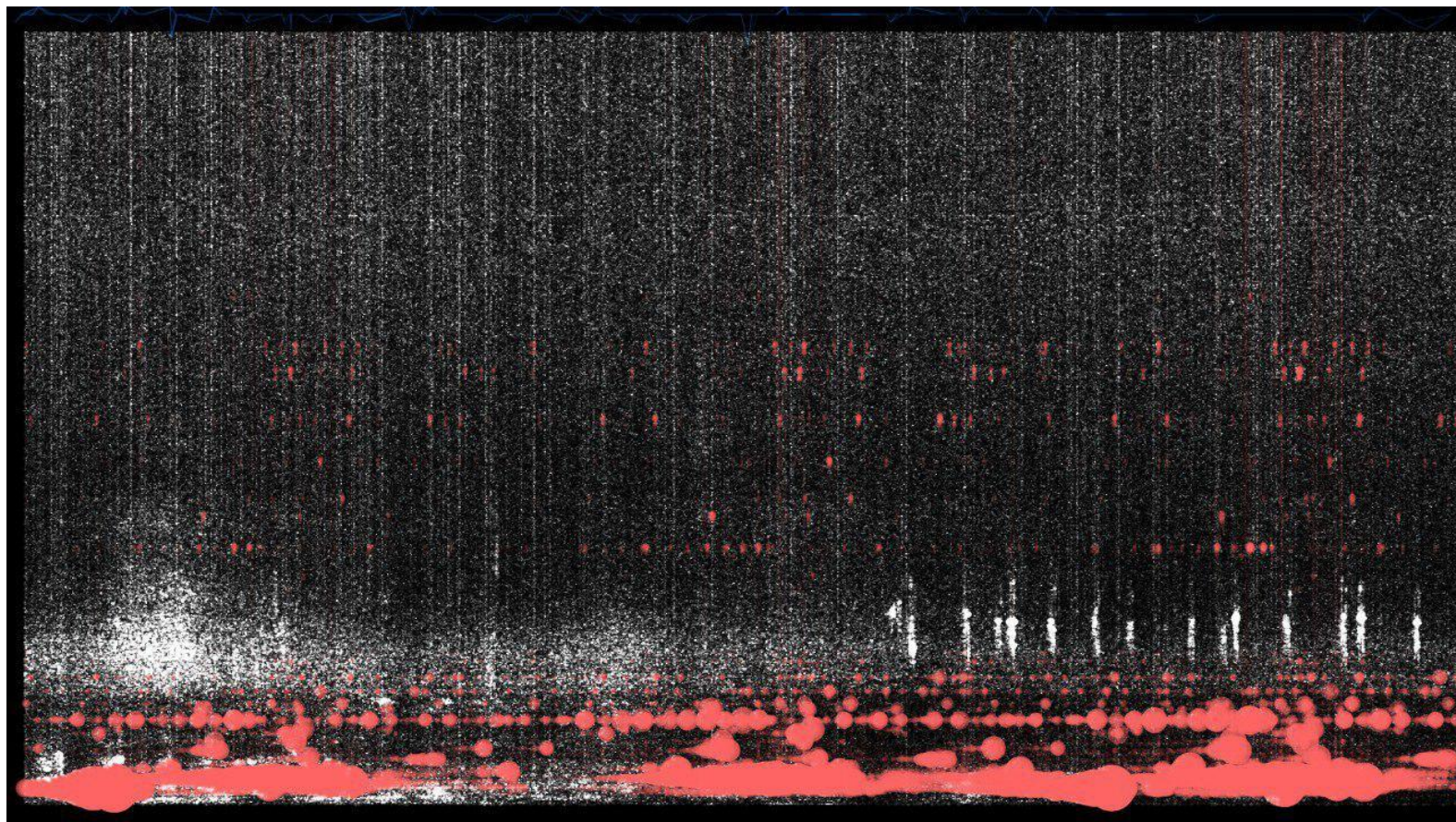
633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남6길 13
064-755-2018 curator.yang@gmail.com
www.culturespaceyang.com

공연
웨더리포트(김지연, 이강일)_제주
맥스 바라이서 스미스, 샘 바라이서 스미스_런던

일시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
장소 문화공간 양

주최 문화공간 양, 웨더리포트, 사운드캠프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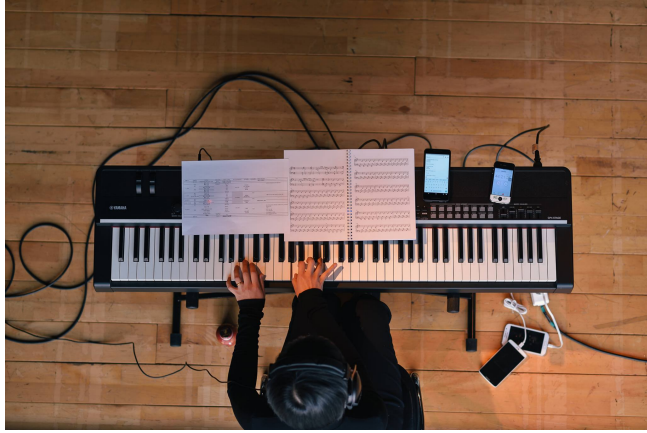
투명한 음악 Transparent Music (2017 -)

- 개요

- 2016년 문래예술공장 MAP 음악분야 지원받아 2017년 2월에 발표
- 실내극장 공연
- 기술매체, 몸, 소리 협업 공연 (이강일, 송명규, 김지연)
- 공연 이후에 도큐먼트 영상, 리뷰북 발간, 음반 작업 진행

- 컨셉

- 극장 안팎의 소리를 실시간으로 공연장 내부로 가져와서 공연을 구성한다.
- 관객은 각자의 스마트폰+헤드폰으로 청취
- 즉흥 요소.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간의 차이발생



도큐먼트 영상

- <https://vimeo.com/223319254>
- 공연 이후 도큐먼트 영상(연출 조용기)이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영
- **2019년**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도큐먼트 영상 초청. '투명한음악' 쇼케이스 예정
- 음악이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다른 매체나 장르를 통해 변주되고 다시 이야기되는 계기

피아노 데이 서울 PIANO DAY SEOUL

- 동기
: 피아노를 계속 치고 싶고, 피아노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음.
- 관심
혼자 연주하는 피아노.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

11 with Bahng Hyewon | 11과 방혜원

PIANO DAY

SEOUL

2018.03.29-8PM
studioLOG

Lee Sangwook | 이상욱

Lee Hansari | 이한열

Choi Minseok | 최민석

PIANO

DAY

London

Seoul

29/03/2019
11am GMT

29/03/2019
8pm KST

San Mei Gallery
39a Loughborough Road
SW9 7TB
London

Jeokdo
13, Yeonseo-ro 35-gil
Eunpyeong-gu
Seoul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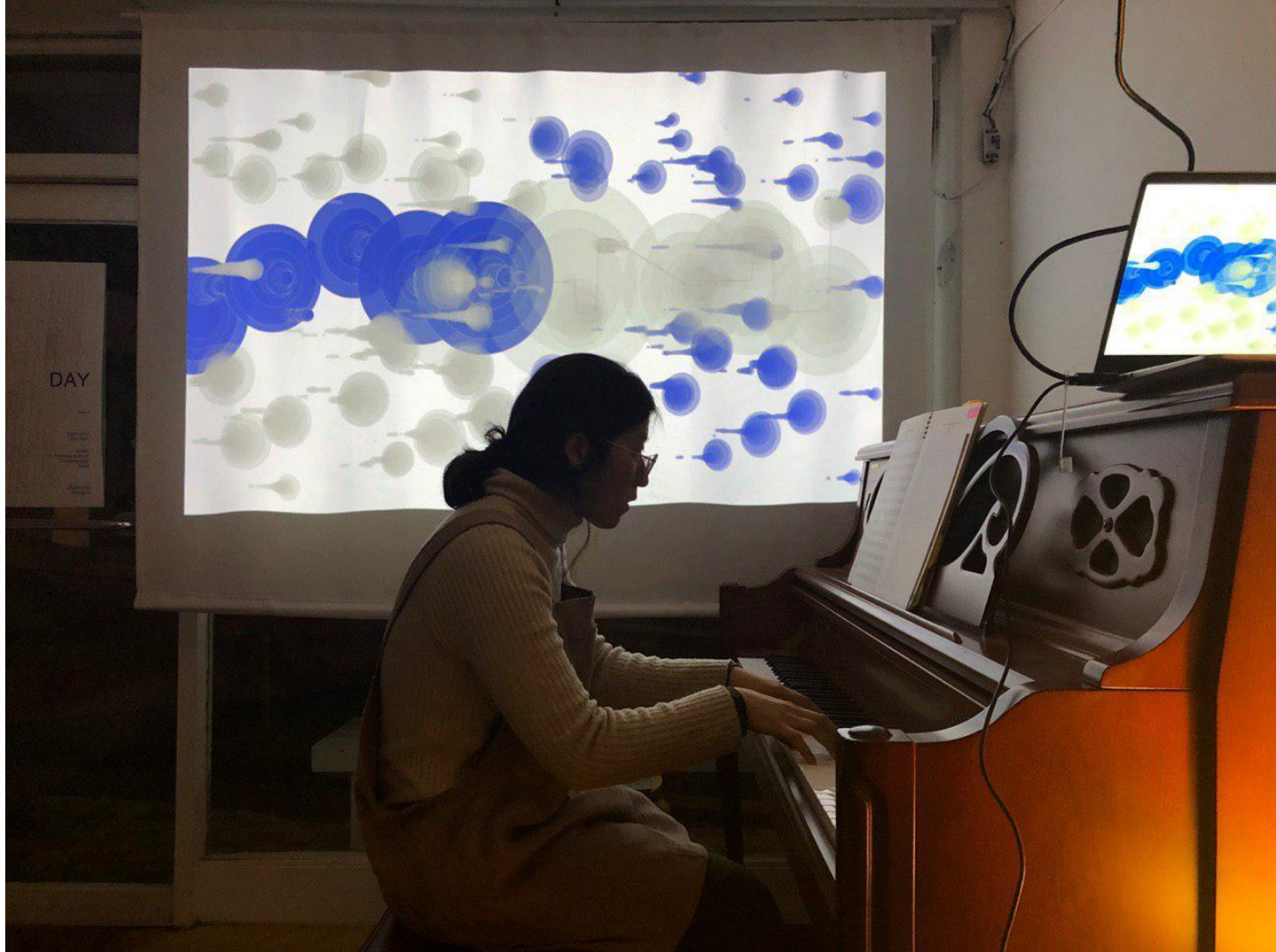
Sam Baraitser Smith
Grant Smith

Jiyeon Kim
Gangil Yi

피아노 데이 서울 2019

- 독일의 닐스 프라함/**Erasedtapes** 레이블이 시작한 피아노 이벤트. 피아노를 애정하는 전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연, 워크숍 등을 조직하여 함께 즐기는 플랫폼.
- 올해는 영국 작가와 함께 기획. 라이브 스트리밍을 피아노 연주에 적용해서 곡을 만들고 공연을 만듦. 1부는 영국 연주자와 **two piano**로 시차를 두고 합주. 2부는 스트리밍 되어 돌아오는 소리를 고려하여 곡을 만들거나 기존의 곡을 다시 치는 방식으로 공연.
- 피아노연주와 생성 그림이 있는 오디오비주얼 공연
- <https://vimeo.com/user98689565>





DAY

Real time
Network Echo

									E
				D	F	D	F	A	G
		G	B	G	B	G	B	G	A
	E	C	E	C	E	C	E	C	D
	C	E	G	B	D	F	A	C	F
			C	E	G	B	D	F	G
					C	E	G	B	D
									E

G	E								
C	A	C	A						
F	D	F	D	F	D				
B	G	B	G	B	G	B	G		
E	C	E	C	E	C	E	C	E	C
E	G	E	C	A	F	D	B	G	E
A	C	A	F	D	B	G	E	C	
D	F	D	B	G	E	C			
G	B	G	E	C					
C	E	C							

piano day play*

푸른 빙하가 들고 있다
건반을 누를 때마다 부서져 나가는 얼음 조각들
너는 저 너머의 소년을 바라본다
귀를 기울이면
가까스로 돌아오는 소리
우리는 느리고 부드러운 방에서
음의 부스리기를 따라 세워지는
걸고 가는 산들을 본다
세모와 세모 사이를
잇는 정적
불시에 찾아온 손님의
몸짓
구르는 차 바퀴의
웅성거림

아름다운 빙하는 모두 녹아
동그란 물방울들이 되어버리고
구름을 바라보던 너는 에코를 기다리기로 한다

에코

단단하고 긴 손이 내던진 그 투명한 구슬을

네가 귀를 기울이고
건반을 누르며 나아갈 때
우리는 가만히 앉아
꿈결같이 부드러운 흰 파도를 맞게 된다
그 물결을 사랑하는 마음에
너의 숨소리를 따라 하게 된다

*11

..

- 음악의 프로젝트화

: 음악을 만드는 방식이나 전달하는 매체(책, 영상, 스트리밍 등)를 다원화하여 음악의 경계를 다시 사유해본다.

- 협업

: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작업을 함께 성장시켜가고 연례화하는 것.

: 다른 지역의 기획자, 예술가들과 공동 기획. 매년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도록 작은 규모로 지속하는 방식 찾기